

# 10대 8명이 후배 여중생 폭행...폭력영상 촬영 유포도

### “뒷담화 했다며 둘러싸여 맞았다” 광주남부경찰에 고소 ‘아빠가 검사다...신고해도 안된다며 폭행’ 피해자 진술 학폭위, 출석정지·봉사명령 징계에 피해 학생측 반발

광주에서 10대 중학생들이 자신들 몰래 ‘뒷담화 했다’는 이유로 후배 여학생에게 폭력을 휘둘러 경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들 학생들은 후배를 대상으로 한 폭력 영상을 촬영, 또래 친구들 카카오톡으로 보내는가 하면, 폭력을 행사하면서 ‘검사 아빠’ 등을 들먹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최근 광주지역 학교폭력이 잇따라 드러나면서 정확한 실태조사 및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21일 광주남부경찰에 따르면 A(15)양이 지난 5월 21일 광주시 남구 모 아파트 정자에서 B

(16)양 등 8명에게 둘러싸여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을 제출했다. A양은 고소장에 모 중학교 3학년생인 B·C(16)양이 지난 5월 18일 오후 7시께 자신을 불러 내 몸을 때리고 밀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이 자신들의 뒷담화를 했다며 불려내 폭력을 휘둘렀다는 게 A양 주장이다. A양은 또 당시 현장에 B·C양의 친구를 포함한 8명이 모여있었고 위력을 과시하며 자신을 때리는 장면을 촬영했다고 했다. A양측의 신고로 학교측은 지난 6월 광주시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해당 사건을 넘겼다. 교육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조사 과정에서 가

해 학생들의 폭력 가담 정도, 폭력 행위 등을 파악하는 한편, 폭행 과정에서 ‘우리아빠가 검사다. 넌 신고해도 안된다’는 말을 들었다는 피해자 진술도 확보했다. ‘우리아빠는 건설업체 사장’이라는 취지의 말을 한 학생도 있었다는 증언도 피해학생에게서 나왔다. 부모들의 사회적 지위로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학교폭력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해당 학생들에 대한 가담 정도를 고려, 폭행에 직접 가담한 B·C양 등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나머지 6명에게는 사회봉사와 교내 봉사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피해학생측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학교측의 경미한 처분에 반발하고 있다. 학생의 피해 영상까지 촬

영, 유포했는데도 교육당국이 너무 인일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피해학생측 부모는 학교폭력 심의위 결과에 불복, 행정소송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가해 학생측은 이와관련, 촬영한 영상을 외부로 유포한 게 아니라 일부 친구들과 메신저로 공유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해 학생으로 지목된 학생들은 최근 자신들 또한 A양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맞고소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학폭 가해자와 계속 같은 반...괜찮나요?

### 폭행·성추행 등 지속적 괴롭힘 학폭위, 3일 출석정지 후 줄 분리 피해학생 문제 제기에 학교 고심

“개학 이후부터 줄곧 폭행을 당하고 성추행까지 당했는데 아직도 같은 반에서 함께 수업을 듣는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광주시 서구 모중학교 2학년생 A(14)군 부모는 학교측의 대응이 아쉬워하며 한다. A군은 올해 개학 뒤 같은 반 B(14)군으로부터 지속적인 괴롭힘 피해를 당했다. B군이 A군 기습을 발로 차고 휴대전화를 빼앗아가는 가 하면, A군 실내화를 운동장으로 던지고 다른 친구들과 축구공 삼아 놀았다는 게 A군 부모 주장이다. A군은 피해사실을 알리면 보복을 당할까 두려워 숨었다고 했다. A군은 지난 5월 28일 교실에서 B군에 의해 바지가 벗겨졌고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된 담임 교사에 의해 학교폭력 피해가 드러났다. 교육

지원청 학교폭력 심의위원회는 이후 학교폭력 피해 내용에 대한 심의를 열고 B군에 대해 ‘출석정지 3일’을 징계를 의결했다. 피해 학부모측은 그러나 ‘출석정지 3일’의 징계가 끝난 뒤 같은 반에서 여전히 함께 생활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학교측이 피해학생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학교측 조치는 B군의 자리를 이동하는, 이른바 ‘줄 분리’가 전부였다. 경미한 학교폭력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충격을 고려하지 않은 채 가해 학생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는 게 온당한 조치냐는 주장이다. A군 부모는 “징계가 끝났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을 같은 반에서 그대로 수업을 받도록 할 수 있느냐”며 “행정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학교측은 “학교 재량으로 분리 조치는 불가능하고 교육지원청 산하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결정이외 학교측이 추가로 취할 조치가 없다”며 곤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주먹밥도시락 먹고 힘내세요” 21일 광주 북구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센터에서 보건소 직원들이 디자인 진흥원에서 의료진들을 격려하기 위해 보낸 주먹밥도시락을 의료진과 봉사자들에게 나눠주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 ‘여수 3명 사망’ 카 캐리어 불법개조 확인

### 사고 운전자 진술 확보

횡단보도를 건너던 노인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여수 카 캐리어(차량을 배송하는 화물차) 사고(광주일보 7월 20일 7면) 관련, 경찰이 해당 카 캐리어의 불법 개조를 확인했다. 21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0일 오전 여수시 서교동 한재사거리에서 발생한 카 캐리어 사고 조사 과정에서 해당 차량을 불법으로 개조했다는 운전자의 진술을 확보했다. 운전석 뒷부분과 차량 뒷부분에 운송 차량을 추가로 실을 수 있도록 공간을 늘렸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경찰은 이같은 점을 확인하기 위해 오는 23일 한국교통안전공단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불법개조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불법개조가 제동장치에 영향을 미치는 등 사고와의 관련성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게 경찰 구상이다. 경찰은 같은 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차량 브레이크 파열 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파키스탄 난민 가족 “이제 광주에서 살아요”

### 법무부 상고 포기로 지위 인정

반정부시위 전력 때문에 이대로 귀국할 경우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던 파키스탄 출신 가족들이 그토록 바라던 난민인정증명서를 받았다.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광주일보 6월 18일 6면)과 법무부의 상고 포기에 따른 것으로, 광주에서 몇몇한 취업 활동을 하면서 생활할 수 있게 됐다.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지난 19일 파키스탄 출신 A씨 가족 등 4명에 대한 난민인정증명서를 발급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 가족은 이제 난민법상 한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제31조), 기초생활보장(제32조), 교육의 보장(제33조), 사회적응교육 등의 실시(제34조), 학력의 인정(제35조), 자격의 인정(제36조) 등을 보장 받게됐다. A씨 가족은 그동안 ‘난민신청자’ 신분으로 힘겨운 하루하루를 버텼었다. 난민 인정을 받지 못했을 때만 해도 1~3개월짜리 단순 노동을 하는 것에 만족해야 했다. ‘난민신청자’ 신분으로는 할 게 많지 않았다. A씨 가족은 이제 한국 거주자격(F-2)를 부여 받고 취업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난민여행증

명서도 발급받아 숨어지내지 않고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게 됐다. A씨 가족의 국민건강보험 가입도 가능해졌고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신청하면 초·중등 교육법에 따른 교육비 지원도 가능해졌다. 일각에서는 언어·문화·차별의 장벽이 여전히 높아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적응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A씨 가족의 난민인정 소송을 맡은 김민아 변호사는 “A씨 가족의 난민 인정이 광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거의 유일한 사례라 난민법으로 보장하는 한국민과 같은 수준의 보장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알 수 없다”면서 “현재 이들 가족이 거주자격(F-2)카드를 발급받을 비용을 마련하는 데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도초도 섬 내 시세 9억

- ▶ 임야 29,455㎡(구 8910평), 전망 좋음
- ▶ 회사 정리 차원에서 그냥 드립니다.
- ▶ 대출 1억2천만원, 사채 1억, 승계 가능자

## 오피스텔 매매 임대

- ▶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 8층, 계약 108㎡ 전용 67㎡
- ▶ 사무실 전용, 창가, 전망 좋음
- ▶ 매매 - 1억1000만원
- ▶ 임대 - 보 1000만원에 월 60만원

## 덕남동, 임야

- ▶ 장/단기 최고 투자처
- ▶ 도시지역, 자연녹지, 그린벨트
- ▶ 각종 개발 호재 많음
- ▶ 임야 661㎡, 지분매매
- ▶ 매매 - 6000만원

## 오피스텔 신축부지

- ▶ 신안동, 대지 582㎡(구 176평), 상업지역
- ▶ 지하 1상10층, 15평, 72개 허가득
- ▶ 법인 양도·양수 가능
- ▶ 분양/임대 100%될 장소
- ▶ 매매 - 협의

문의. 010-3605-5000